

특목·자사고는 물론 일반고도 다수

전국 기숙형 고등학교 따라잡기

중3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교 선택에 대한 고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거주 지역 근거리 학교를 보내자니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학 진학 실적이 다소 아쉽고, 내신 성적을 고려해 보내자니 면학 분위기가 걱정된다. 아직 진로도 확실히 정하지 못한 반항심 가득한 사춘기 아이가 과연 자기 주도적으로 대입 준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까지. 기숙형 고등학교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기숙형 고등학교는 특목·자사고와 전국 단위 선발 자율학교가 대표적이지만 일반고 중에서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다. 전국의 기숙형 고등학교를 한데 모아봤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도움말 김길동 교장(서울 풍문고등학교)
자료 교육부·학교 알리미·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자립심 UP! 자기 주도 OK!

고등학교 선택은 대입 준비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다.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대입 레이스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립심과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기숙형 고등학교는 이 두 가지 핵심 역량을 모두 성장시킬 수 있는 학교로 꼽힌다. 서울 풍문고 김길동 교장은 “모든 기숙형 고등학교의 큰 원칙은 같다.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생활과 학업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철저한 관리와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숙형 고등학교의 가장 큰 매력은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다. 통학 시간이 절약돼 학습 시간 확보가 좀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교과 심화 학습, 영재반 활동, 진로·진학 멘토링, 학습 컨설팅, 독서 활동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등 사교육 없이 학생들의 학업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도 풍부하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특목·자사고와 전국 단위 선발 농어촌 자율학교가 대표적이다(표 1). 전국 8개 영재학교, 20개 과고, 7개 국제고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 외고의 경우 31개교 중 24개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표 1_ 기숙사 운영하는 주요 외고·자사고와 전국 단위 선발 자율학교

외고	서울_대일외고, 명덕외고 / 부산_부산외고, 부일외고 / 인천_미추홀외고, 인천외고 / 대구_대구외고 / 대전_대전외고 울산_울산외고 / 경기_경기외고, 고양외고, 김포외고, 동두천외고, 성남외고, 수원외고 / 경남_경남외고, 김해외고 / 경북_경북외고 충남_충남외고 / 전북_전북외고 / 전남_전남외고 / 충북_청주외고 / 강원_강원외고 / 제주_제주외고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	서울_하나고 / 인천_하늘고 / 울산_현대청운고 / 경기_외대부고 / 경북_김천고, 포항제철고 / 충남_북일고 전북_상산고 / 전남_광양제철고 / 강원_민족사관고
지역 단위 선발 자사고	서울_배재고, 한대부고, 동성고, 보인고, 장훈고, 중앙고 / 부산_해운대고 / 대구_계성고, 대건고 / 경기_안산동산고 / 충남_삼성고
전국 단위 선발 자율학교	경남_거창고, 거창대성고, 남해해성고 / 충남_공주사대부고, 한일고 / 경북_풍산고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서울·경기 주요 학교로 살펴본 기숙형 일반고

서울 일반 학생 입학 가능한 기숙사 적어

서울시 내 기숙형 일반고는 그 수가 많지 않다. 2019년을 기준으로 기숙사를 보유한 고교는 총 24곳이다. 하지만 기숙사가 있다고 해서 모두 입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숙사가 5실 이하면 일반 학생 대상이 아닌 운동부 전용이나 외국인 입소 같은 특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울에서 일반 학생이 입소 가능한 학교를 추려 보면 총 10여 개 학교로 범위가 좁혀진다(표 2).

지역	학교명	실 수	수용 정원(명)	비고
용산	용산고	15	60	남고
	오산고	28	97	남고
마포	광성고	11	60	남고
금천	동일여고	9	72	여고
관악	미림여고	27	68	여고
송파	배명고	30	120	남고
중로	경신고	18	62	남고
구로	우신고	20	174	남고
강남	풍문고	42	216	공학
중랑	해원여고	40	140	여고
강북	창문여고	18	109	여고

출처 학교 알리미·서울시 교육청(2019년 기준)

경기 80개교 기숙사 입소 가능

서울에 비해 경기는 기숙형 일반고가 다수 포진해 있다.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기숙형 일반고·자공고 중 약 80 곳은 일반 학생의 입소가 가능하다. 특히 비평준화 지역은 오랜 역사는 물론 선호도 높은 대학의 진학 실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화성의 화성고, 오산의 세마고와 양평의 양서고, 파주의 한민고는 특히 대입 정시 확대 기조에서 주목받는다. 참고로 경기 내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는 경기 전역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평준화 지역 학생의 경우, 불합격 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거주 학교 내 일반고로 강제 배정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타 지역 학생들은 경기의 기숙형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의 기숙형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면 중3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기 전 경기 내 중학교로 진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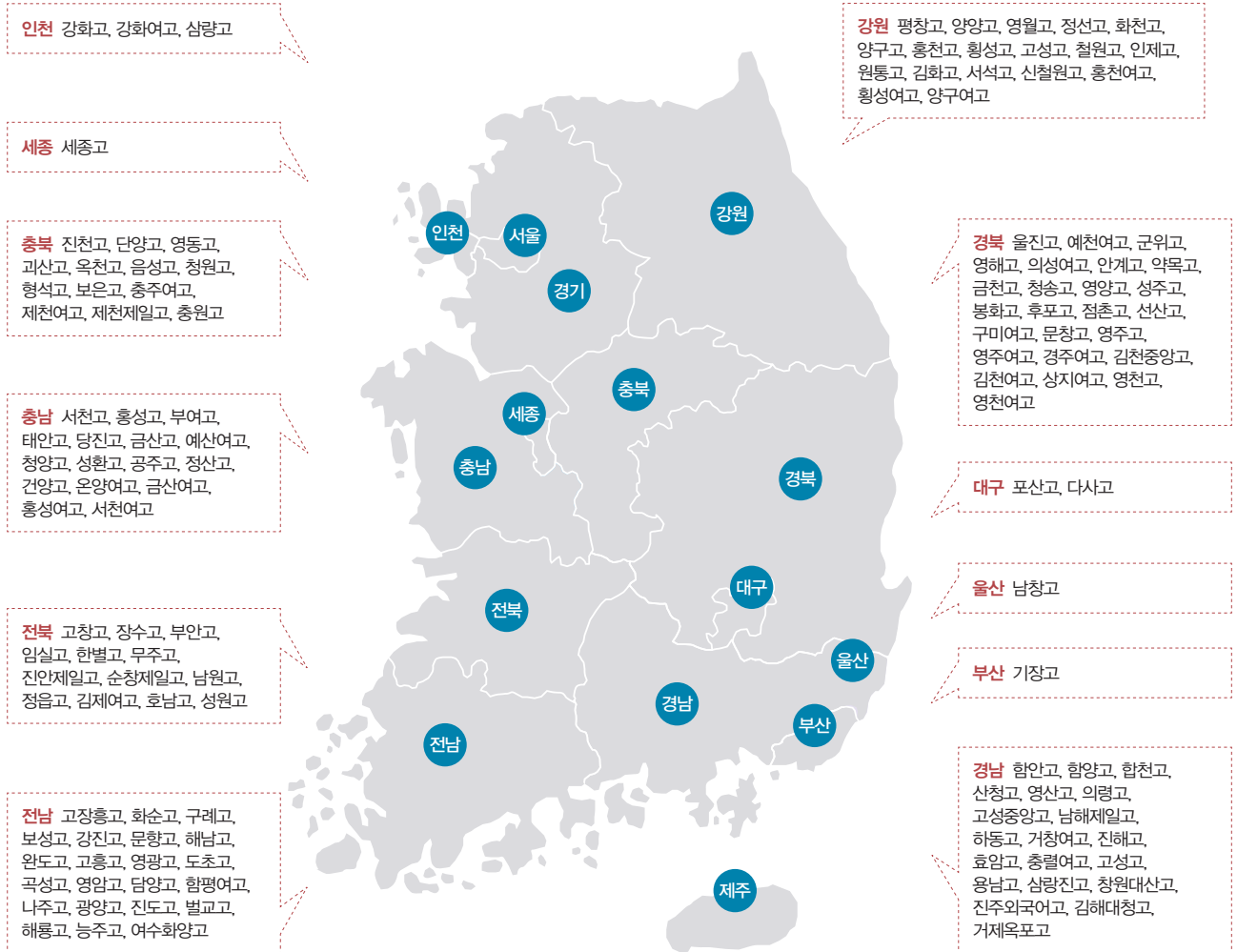
지역	학교명	실 수	수용 정원(명)		
			남자	여자	합계
광명	진성고	10	34	34	68
	군포중앙고	17	32	36	68
군포의왕	모락고	21	40	44	84
	백운고	22	44	44	88
	의왕고	20	32	32	64
	우성고	34	48	54	102
부천	정명고	10	34	34	68
성남	효성고	28	56	0	56
수원	수원여고	13	0	52	52
	경안고	64	60	60	120
안산	안산강서고	23	48	50	98
	안산고	16	80	80	160
	신성고	42	200	0	200
용인	백암고	40	80	80	160
	용인고	11	24	42	66
	태성고	13	104	0	104
의정부	의정부고	19	85	0	85

출처 경기도교육청(2020년 기준)

지역	학교명	실 수	수용 정원(명)		
			남자	여자	합계
가평	가평고	33	66	66	132
	광주중앙고	46	124	156	280
광주하남	경화여고	72	0	528	528
	진건고	23	52	42	94
구리 남양주	심석고	27	45	45	90
	덕소고	41	32	58	90
	외부고	41	80	84	164
김포	하성고	36	72	68	140
동두천양주	덕계고	30	56	64	120
시흥	함현고	18	54	54	108
	소래고	24	46	46	92
안성	경기창조고	24	32	64	96
	가운고	46	138	134	272
양평	안벌고	83	194	180	374
	양평고	36	72	72	144
여주	양서고	26	271	361	632
	여주제일고	18	36	48	84
연천	대신고	36	138	60	198
	전곡고	60	90	90	180
이천	효양고	17	48	43	91
	이천양정여고	19	0	102	102
	장호원고	36	72	72	144
파주	다산고	55	54	56	110
	봉일천고	31	60	64	124
평택	한민고	400	500	700	1200
	효명고	20	71	77	148
	현화고	38	28	28	56
	평택여고	10	0	120	120
	한광여고	30	0	120	120
포천	평택고	34	198	0	198
	신한고	35	48	92	140
	영북고	28	138	30	168
화성오산	포천일고	32	60	60	120
	오산고	20	53	64	117
	두레자연고	33	84	46	130
	삼피고	46	78	84	162
	비봉고	45	108	124	232
	병점고	42	84	84	168
	세마고	78	121	179	300
화성고	101	303	300	603	

출처 경기도교육청(2020년 기준)

전국 기숙형 일반고 지정 현황



출처: 교육부(2020년 3월 1일 기준)



이것만은 꼭!

2021 신입생, 코로나19로 인한 입실 기준 변화 살펴봐야

일반고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는 대부분의 경우 재학생 중 일부만 입소한다. 입소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 예년까지는 성적, 통학거리, 자기 주도 학습 역량, 가정형편 등 다양한 기준이 있었다. 한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1인 1실, 1인 2실로 입소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다수의 학교가 원거리 거주 학생 배정을 우선시하고 있다. 경기 화성고 관계자는 “기숙사 입소는 성적과 원거리 가산점을 합산해 선정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로 기존 600명 정원에서 400명만 수용하고 있다. 2021학년 신입생은 학교별 기숙사 입소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길 권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숙사 생활은 단체 생활임을 잊어서 안 된다. 규칙을 잘 지키는 한편, 멘탈 관리 역량도 필요하다. 김 교장은 “기숙사 관리 규정을 어기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범해서는 안 되기에 선발 과정에서부터 학생의 여러 면을 살핀다. 기숙사를 선호하는 학부모는 자녀가 기숙사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향인지 미리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㉔